

제7회
레즈비언문화제
9. 21(월) ~ 25(금) 학문관 1층



그녀가 그녀를
사랑할 때,

소통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학생문화관 219호
TEL 3277-4712
www.flyinggurl.com
flyinggurl@hanmail.net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contents

intro

- 2 용어설명
- 4 변날연혁
- 6 그녀의 이야기
나나 : 레벨업 노가다중인 오즈의 사자님
지은 : 예언종료
- 8 소통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그녀와 그녀 사이

- 게이섹스에 끌리는 '평범한' 그녀들 11
-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의 소통 14
- 정력에도 안좋은 팜부치 논쟁에 대해 16

그녀와 가족 사이

- 18 레즈비언 딸내미와 엄마, 대화하다
- 20 사랑하는 그녀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

그녀와 사회 사이

- 채식 - 양산형 스테레오타입 22
- 역설의 미학, 소리없는 아우성?! :: 24
총학과 자치단위의 갈등에 부쳐
- '다수'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묻다 26
- 퀴어퍼레이드 현장스케치 28
- 그녀의도전이 남긴 것들 :: 30
최현숙,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 대담 :: 변태소녀의 미래, 32
레즈비언으로 살아남기
- world news 37



제7회

소통

레즈비언 문화제

용어 설명

동성애 homosexuality 동성애자 gay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동성애자는 이렇게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서 이름붙인 사람을 말하지요.

한편 '동성연애 same-sex act' 혹은 '동성연애자 homo' 라는 말은 동성 간의 성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단어로써 모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가 아닌 존재being입니다.

양성애자 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퀘스처닝 questioning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을 어떤 범주에 밀어넣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존재입니다.

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부릅니다. 즉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갖고 자신을 여성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던, 고대 그리스의 4대 시인 중의 한명인 여류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레스보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성소수자, LGBT, 퀴어 queer, 이반 二般, 異般

이성애적 규범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수'란 단순히 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표준화'된 주류와 권력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L레즈비언 G게이 B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성전환자) Q퀘스처닝을 성소수자, 이반, 퀴어queer라고 부릅니다.

커밍아웃 coming out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하는 커밍아웃은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어 더욱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웃팅 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아웃팅은 성소수자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 삶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지요.

6색 무지개

무지개는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성소수자의 상징이며 성소수자의 다양성, 성적정체성의 스펙트럼을 상징합니다.

성 정체성 sexual identity

개인이 어떤 성에게 끌리는지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의식하고 규정짓는 이름을 뜻합니다.

동성애 공포증 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 혹은 혐오증은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이 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 혐오범죄를 만들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데 괴로움을 겪도록 합니다. 특히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자에게도 내재화되고, 실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이성애중심주의 heterosexism

오로지 이성애만이 존재하며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성애만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성애적이지 않은 모든 성애적 관계나 정체성, 교제, 커뮤니티 등을 부정하며 낙인찍도록 사회화됩니다.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내역

2001. 5 2001. 7 2001. 9 2001. 10	대동제- 무지개 자보, 플랜카드 학내 게시, 장기 자랑 참여, 폐막제 줄다리기 참여 '여성이반 인권캠프'주최(한국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공동주최) 퀴어 문화제 '무지개 2001' 참여 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동성 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반성폭력 네트워크' 참여
2002. 3 2002. 3 3.8 2002. 3 3.8 2002. 3 2002. 4 2002. 4 2002. 5 2002. 5 2002. 6 2002. 6~9 2002. 7 2002. 8 2002. 9 2002. 11 2002. 12	학내 정식 자치단위 인준 여성의날 기념 학내 사업 - 레인보우 배지, 퀴어 팬시상품 판매 여성의날 기념 무지개 시위 주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 끼리끼리 등 공동주최) 페미니즘 문화제 참여 - 퍼포먼스 기획, 자료집 글 기고 (이화여성위원회 주최) 이화 레즈비언 오티 기획 연세대 성소수자공동체 컴투게더 7주년 기념식 참여 메이데이 기획단 여/성 기획 (관악여모 등 공동기획) 이화 대동제 일일 주점 개최 퀴어 문화제 '무지개 2002' 후원, 참가 외부 간사 초청 오픈 세미나 진행 한국 동성애자 연합 결성 제 5회 청소년 인권학교 주최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컴투게더 공동 개최) 대학 동성애자 모임 연합 오티 기획 (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5 공동기획) 중앙대 이반모임 '레인보우 피쉬' 영화제 참여 밝히는 영화제' 개최 (끼리끼리 공동개최)
2003. 3 2003. 3 2003. 3 3.8 2003. 4 2003. 4 2003. 3~ 2003. 1~ 2003. 5 2003. 5 2003. 8 2003. 9 2003. 9 2003. 12	새내기 동성애자 맞이 사업 - 플랜카드와 자보작업 자치단위 홍보- 영상물 제작, 상영 및 자료집 제작, 배포 반성폭력 네트워크 캠페인- 자료집, 뱃지 배포 여성의날 무지개 시위 참가 ('다름으로 달은 연대' 주최) 연세대 성소수자공동체 컴투게더 8주년 기념식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권고지시 성명서 발표 퀴어문화축제 2003 조직위원회' 결함 동성애자 자긍심 갖기 세미나 진행 (끼리끼리 간사 박통) 제 1회 레즈비언 문화제 <넌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 개최 방에 비치되어 있던 문화제 자료집이 모두 도난되는 테러발생 제 6회 청소년 인권학교주최(공동주최) 이화여대가 변날의 공개세미나(여성성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를 위한 강의실 신청을 거부 이화여대를 '성적지향에 의한 교육기관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 변날 해소 위기
2004. 2 2004. 4 2004. 4 2004. 5 2004. 8 2004. 8 2004. 9 2004. 10. 4~6	변날 해소 자료집 준비 변날 재결성 중학생회에게 변날 자치 공간 사용권 확보를 위한 질의 반성폭력 네트워크 재정비 토론회<레즈비언, 그녀들의 다름과 같음의 목소리들> 주최 (레즈비언인권연구소 공동주최) 레즈비언 인권운동가 오티 웹진 '또 다른 세상' 기획 업데이트 글 기고 제 2회 레즈비언 문화제 <하지만 난 레즈비언인 걸> 개최

2005. 5
2005. 9. 26~28
2005. 9
2005. 10

10대 청소년 이반을 대상으로 한 '지금 만나러갑니다' 행사 개최
제 3회 레즈비언 문화제 <편견클리닉, 이반과 일반> 개최
문화제 기간 중 자보가 찢기고 무지개걸개가 도난당하는 등의 테러 발생
부산여성성소수자인권센터의 행사 참여

2006. 9
2006. 9. 18~22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레즈비언권리연구소와 함께
2006 레즈비언 문화제 '위험한 레즈비언의 화려한 꿈' 공동 주최.
제 4회 레즈비언 문화제 <하늘을 봐, 변태소녀가 날고 있어> 개최

2007. 2
2007. 3
2007. 5
2007. 9. 17~22
2007. 11
2007. 11

이화자치단위연합회 결성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제 1회 문화제 '지금 일하러갑니다' 개최
'아웃팅'을 주제로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제 5회 레즈비언 문화제 <변하다> 개최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결함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 대학모임' 구성

2008. 3
2008. 3
2008. 4
2008. 5~
2008. 5
2008. 5
2008. 9. 22~26
2008. 9
2008. 9
2008. 10
2008. 11
2008. 12

새내기 성소수자 맞이 사업 - 플랜카드와 자보 작업
이화자치단위연합회 제 2회 문화제 '지금은 연애 중' 개최
최초 성소수자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과의 간담회, 후원파티 자원봉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
갑소사프로덕션의 대학 내 여성주의 다큐멘터리 촬영
(성공회대 여성주의저널 n, 서울대 여성주의자 문화집단 난리부르스 주최)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강사 한국레즈비언문화인권센터 대표 한채윤)
제 6회 레즈비언 문화제 <변태> 개최
문화제 기간 중 무지개걸개 도난 사건
테러 역사상 처음으로 테러주동자 3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문제를 종결하고자 접촉 시도
테러주동자들이 교내 모 동아리 대표 등 임원임을 파악하고
동아리연합회에 비상동아리대표자회의 소집요청-동아리 대표자들의 투표로 중앙동아리 제적
LGBT인권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활동허가원 불허로 무산
'변태소녀에게날개를달아주고싶은사람들'과 함께 2008년날문화제테러자료집 발간

2009. 2
2009. 2
2009. 3
2009. 3
2009. 4
2009. 5
2009. 6

새내기에서 자치단위 소개 자료집과 함께 '새내기를 위한 성소수자 바로알기 캠페인' 개최
새내기에서 중학생회와 교류해 자치단위 소개 영상 촬영 무산
학교 방문 후부터 새내기 성소수자 맞이 활동거리를 완성하였으나 중학생회 반대 철회
2009 LGT 활동거리를 학교에서 무지개행동 주최
교내에서 퀴어문화제공동회 개최
가톨릭대 성소수자 중 주보에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한기연과 공동주최)
문화제회의 자치단위연합회 학내 지관 거부로 결함가능
결함 신청서 진행 (자치단위연합회 공동대응)

2009. 9. 21~25

제 7회 레즈비언 문화제 <소풍> 개최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는 이화여대 내 자치단위로서,
학내에서부터 학외까지 레즈비언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롭게 할 여러가지 활동을 펼쳐나가고자합니다.
날갯짓에 함께 할 **신입 활동가**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본 빛은 매우매우 소심하고 겁 많으며 상처를 잘 받는 빛이다. 세상에 소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나만은, 나는 일상생활에도 소심하며,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에도 매우 소심하다. 아웃팅은 물론, 커밍아웃에도 극도로 소극적이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채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에는 레즈비언이나 바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내가 먼저 "뭐, 나만 안 좋아하면 상관없긴 한데 난 그런 사람들 좀 이해 안가고 꺼려지더라" 라는 말을 하는 등등 먼저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까곤(?) 했었다. 그 뿐만이던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 그 사람이 헤테로이전, 레즈비언이전, 바이이전,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게 나에게는 공포였다. 그래서 나의 이 쪽 인맥을 상-당히 빈약하다. 사실, 나는 변태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을 때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내가 바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각각명이나 늘어나다니! 나에게는 큰 일이었고, 나는 그러한 큰 일을 치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나를 용맹(ㅋㅋ)한 사람이다.

나의 이야기

레벨업 노가다 중인 오즈의 사작님

비록 내가 이렇게

용맹한 사람으로 변신 중이기는 하나

나에게는 나를 힘든 일들이 꽤 있었다. 내가 어리디

어렸던 중학교 때에 만났던, 처음으로 '좋다'의 감정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엑스와의 일이 엄마에게 발각되어, 나의 엑스는 모진 대접을 받고 쫓겨났었고, 나는 머리가 잘리고 커플링 등을 압수당하고 핸드폰과 인터넷이 끊기고 엄마에게 같이 죽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어려서 큰 병을 앓았을 때 엄마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엄마를 상처입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게다가 엑스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것까지 더해져서. 그 때부터 엄마에게 하는 말 전부를 머릿 속에서 우선 검열한 후에 내뱉고 일부러 남자친구도 만들어 알리고 나니 엄마는 그 때의 행동이 그냥 한 때의 일이라고 여기시는 듯 하다. 지금도 죽기 전까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죽음과도 같은 풍파를 겪더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나와 내 애인이 사귀다는 것을 알아챈 선배들은 내가 일년동안 자기들과 동고동락한 후배라는 것을 잊기라도 한 듯이 나와 애인의 일을 가십거리로 취급하며, 내가 부탁이니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한 부탁을 싸그리 무시하고 단 몇 일만에 나와 애인의 일을 모든 선배들에게 소문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나와 내 애인이 사귀다고 말한 것은 덤으로.

정말 죽을 만큼 배신감을 느꼈고, 미웠고, 후회가 되었고, 슬펐고, 불안했고, 무서웠으며 괴로웠다. 그들에게 나는 겨우 이 정도의 존재였다는 것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애인을 알아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웠다. 그리고 그 때부터 나는 그들에게서 내 마음을 떼어내고, 나의 가식레벨을 약 7배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나의 고3 소울메이트는 동성애자들은 (순화하면) 지저분하고 개념없는 자이며 상종하기 싫은 부류라고 말하고 만약 내가 동성애자라면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했던 호모포비아였다. 그 일로 나는 그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할 용기를 바닥 끝까지 잃었고, 그 친구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이 늘어나서 결국 서울에서 부산만큼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누군가에게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

비록 남들이 보기엔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나를 쇼크였고 고난들이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용맹레벨을 업그레이드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근원들은 어찌됐든 나를 매우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고 때리고 욕하고 콧물을 뿜어도 헤어짐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섬나라로 여행도 같이 가는 살가운 친구들도 있고, 나를 보고싶어 해주고 좋아해주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용맹함을 키우기 위해 차곡차곡 노력 중이다.

나는 자신을 양성애자라 불렀다. 지금은 레즈비언이라 부른다. 그런 이름 따위 뭐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건 내가 어떤 성별을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체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가두는 문제'는 내게 꽤나 중요하다. 내게 변태의 의미 있는 만큼 구속 또한 진지한 문제이다. 어쩌면 정체화한 자신을 풀어-보려는 노력의 결과인지 모르겠다. '간지'나는 완전해체를 택하지 않고 '레즈비언'이라는 한글 4중주로 나를 굳히기를 결심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본다.

유년, 자아 인식이 지나치게 뚜렷했다. 걸핏하면 날 애완동물처럼 취급하려드는 부모와 마찰해 화상병이었다. 그것,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는 대로 밀고나간 것은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어쨌든 쟁점의 요지는 이러했다. 「당신들의 말도 안되는 틀이 싫어,」 관념, 사고방식, 소통방식, 교육방식, 성찰방식, 내 기대에 벗어나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기만이 유일하게 어른의 딱지를 갖춘 양 착각하고, 어른이라고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보는 어린아이였다. 성장한 나는 틀이란 틀, 구속이란 구속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일종의 무의식이 정체화를 꺼렸고 실체가 잊혀진 가운데 그림자로 성찰하는 법 밖에는 알지 못했다. 고취감만 높아갔다.

그는 작기를 저주했다. 그러나 작기를 저주하도록 만드는 상대방도 격렬하게 저주했다. -낙쓰매 소성기, 김 희의 성

자기혐오를 내게 가해진 구속을 향한 힘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혐오증을 넘어서고 싶었음에도 과거에 한 쪽 발을 묶으려는 시도에 이르러서는 결코 대답해줄 수 없었다. 「이래서는 영 글러먹었어. 묶이는 것은 싫다. 과거의 망령에게 내어줄 아랑 따위는 없어,」라며 편지도, 일기도, 애정을 품었던 사람도 버렸다. 문자도, 사진도 밥 먹듯이 삭제했다. 그런 뒤에는 기분이 어딘가 맑아진 것 같았다.

그러나 발작은 계속 되었다. 과거란 먼지 한 톨로도 내려앉는 게 아니던가. 술을 마시고 취했는데, 노곤하기 보다는 끝없이 슬펐다. 첫째로 외로웠고, 둘째로 「내게 남은 건 과거에도 미래에도 개뿔도 없다,」

는 생각이었다. 겁쟁이엔겐 망상도 사치하지만 개에 풀이라도 달아주고픈 심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림자극의 막을 벗겨가기로 마음먹었다.

적시 없이는 변태소녀의 야간비행도,

남만비행도 있을 수

없으니,

지은의 이야기



애인 동료

중학 시절,

엄청난 아이를 만났다. 일본어로는

'사랑'을 말할 때 恋(연, '코이')과 愛(애, '아이')가

있었는데, 비보같이 삭제해버린 恋의 대상들을 뒤로 한 채 나타난

그녀는 愛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愛이다. 멍하니 「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좋은데... 그, 그런가보군,」으로 끝마친 중학생들은 써는 여름 날 바람처럼 청량

하게 지나갔다. 이어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이어간 고교시절, 간신히 감이 왔고 이 아이는 지나칠 수 없었기에 성정체화를 결심했다. 「아직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뭘, 그래도 여자인데, 언젠가는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바이섹슈얼 미래를 단정지어버린 것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이어졌던 일이다.

다들 알다시피 아이가 태어나면 「에른 공주님/썩썩한 왕자님이세요,」 그리고 뇌는 기계적인 낙인을 찍는다. 아이의 몸이 Female라면 아이의 마음에도 여성명사를. 이제 그녀는 Male의 몸 속, 남성명사가 선명히 새겨진 '마음'을 할 것이라 자신 있게 기대된다. 무섭게 물림되는 이 두뇌활동도 모두가 건전의 표상으로 예찬해 미지않는 '교육'이겠지. 애초에 뜻과 맞닥뜨려 걸친 제 1 성정체화는 '고르라'는 문제에 대한 선택을 <남자>에서 <여자 그리고 남자>로 확장한 것이었으니, 머릿속에 박혀있던 원본 선택지에 의심은 없었던 것이다.

계속 마시고, 취하고, 스스로를 압박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듯싶었다. 「그래, 여자수명 백이십이라는데 어느 날 어느 남자를 사랑할지 어떻게 알겠어? 사랑은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거라지만, 이런 '예언'으로는 무성애자가 아닐 것도 없지. 예라, 모르겠다. 미래는 침묵중이지 않은가, 한 쪽 발을 역사에 묶으려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달이 뜨는 둘 다 뜨는 오늘은 여전히 오늘의 사람이 있으니,」 눈 가리고 뱀다 도망만 다니다가 바이섹슈얼로 뛰어든 그녀는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살짝은 느슨하게.

유비무환, Movie유환



타인과 만나는 순간 이루어지는 "소통."
교과서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올 만큼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과서의
식상한 결말에 콧방귀를 뀌 만큼,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각자의 특별한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긴 인내와 조율이 필요하다.
연인간의 소통,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소통, 사회와의 소통.

소통에 대한

☞ 낯선 이와 소통

Miao Miao (대만, 2008, 83분)은 낯선 이와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주인공은 일본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징그러운' 달걀을 내밀며 일본인
전학생에게 새로운 것을 먹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시도는 오리엔탈리즘이
그러한 것처럼 폭력적 방식으로 하나의 문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달걀
먹기'라는 소소한 시도는 두 소녀 사이에 있던 어색함과 문화적 차이를
좁혀주는 하나의 소통방식으로 작용한다. 낯선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잔잔하게 풀어가는 이
영화는 매일 낯선 혹은 다른 배경과 생각을 지닌 타인을 만나는 우리에게
그들과의 소통이 두려운 것만이 아님을 전한다.

☞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의 갈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봤을 경험이다. 특히 내가
레즈비언인 경우 가족과의 소통은 더욱 힘들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것에서 오는 편견과 갈등은 말이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와 레즈비언 딸이 함께 살게 되면서 더욱 표면화 된다.

Saving Face (미국, 2004, 91분)은 삶의 방식이 다른 어머니와 딸이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그려내는 영화다.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딸과 보수적인 중국 문화 내에서 늙은 나이에
남편 없이 임신하게 된 어머니. 그녀들은 각자의 감추려했던 서로의 아픔을
알아간다.

☞ 친구와의 소통

'내가 지금 이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해도 괜찮을까? 이러다가 친구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지?' 레즈비언임을 친구에게 밝히는 일은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중요한 일이면서도 항상 불안한 일이다. 더욱이 내가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는 이성애자 친구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더욱 미묘해진다.

Love/Juice (일본, 2000, 78분)은 2001년 베를린 영화제 C.I.C.A.E 상,
볼프강스타우트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평범한 소녀와 레즈비언 소녀가
동거를 하면서 벌어지는 기묘한 관계에 대한 영화이다. 이들은 외떨어진 빨간
1층집에 함께 살지만 가족도, 연인도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친구도 아닌 매우
독특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소통을 해나가면서
나는 얼마만큼의 융통성과 인내를 지니고 조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유비무환(有備無患), 평소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고 했다.
무비무환(movie有患), 영화는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를 보며
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들의 자세를 미리 고쳐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들의 자세

by 람다

☞ 연인과의 소통

본인의 소통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연인과 소통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감정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연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오는 소통의 어려움과 불편함은 다른 관계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보다 더욱 크게 다가온다.

La Repetition: 리허설 (캐나다, 2000, 100분)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두
여인이 10여 년 간 연락이 끊겼다가 30대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애증의 관계에 대해 다루는 영화이다. 그녀들이 떨어져 있는 세월
동안 둘은 소통의 부재 속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에 대한 환상과 오해
속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녀들이 만나게 된 순간 그녀들은
오랜만의 재회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때론 애정의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녀들은 소통에 실패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있어야
하는 거니?"라는 말에 "응, 그런 게 친구야."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녀들의
관계는 중지부를 찍는다.

한편,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상대를 기다리고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했던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존재한다.

자소自梳 (홍콩, 1997, 117분)은 1930년 중국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두 여인의
세월을 넘어선 애정을 그린다. 두 여인 모두 남성애에 대한 상처를 지닌 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지만 일본의 폭격으로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된다. 둘은 몇 십 년 간 서로를 그리며 살아가다 할머니가 되어서야 서로를
만나게 된다. 이때 둘은 마치 이별의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젊었던 시절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한다.

☞ 사회와의 소통

우리는 레즈비언, 여성, 아시아인 등등 여러 정체성을 지닌 채 이 사회를
살아간다. 만약 나의 정체성이 소수자라는 위치를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색안경을 끼지 않은 사회와 소통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소수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개인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동반된다.





Higher Learning : 캠퍼스 정글 (미국, 1995, 128분)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콜럼버스 대학을 배경으로 소수자로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사회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흑인, 여성, 레즈비언 등등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들이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 함께 섞이면서 겪는 충돌은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소통이 왜 콧방귀 나오는 식상하고 현실과 요원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렇듯 소수자로 살아 갈 때 겪을 수 있는 사회와의 갈등은 자신을 지지해 줄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 속에 극단으로 치달기도 한다. **Monster** (미국, 2003, 111분)은 미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에 관한 이야기이다. 자신과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여성을 조명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이 가난과 매춘, 동성애라는 소수자적 정체성을 지니면서 사회와 원활한 소통은커녕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벼랑 끝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반면, **Boys On The Side** (미국, 1995, 117분)은 레즈비언, AIDS환자, 수배자라는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정체성을 지닌 세 명의 여성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풀어간다. 세 명이 함께 여행하고 생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 명의 여성은 자신들만의 방어막을 서로에게 열어주고 다투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면서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각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세 명의 여성은 사회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얻는다.

홀로 사회와 소통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것이 소수자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소수자 간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우리는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배운 걸 써 먹을 만큼 평등한 세상도 아니죠. 전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꼭두각시는 좌절에 쉽게 빠지지. 말릭! 세상을 헤쳐 나가는 힘을 기르게. 알아듣겠나? 이것도 일종의 게임이야. 농구, 축구 그런 게임과 같은 걸세. 자넨 최선을 다해야 해. 현실에선 변명도 허세도 통하질 않아. 자네 머릿속에만 관심을 두지."
- Higher Learning

레즈비언 영화제
in 시네마떼꼬

21일 (월) 2시 표랑청춘 (97")
22일 (화) 5시 사라 워터스 특별전 1. 티핑 더 벨벳 (177")
23일 (수) 5시 사라 워터스 특별전 2. 핑거스미스 (181")
24일 (목) 5시 사라 워터스 특별전 3. 은밀한 유혹 (120")
25일 (금) 2시 보이즈 온더 사이드 (117")
5시 표랑청춘 (97")



게이섹스를 즐기는 '평범한' 그녀들

by 수라

5년 전이었다. 아들이 내린 이케부쿠로의 선사인시티 앞 사거리.
«여성향 동인지/ BL*코믹스»라는 문구가 당당히 써있었던 만다라케의 전광판 앞. 거리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BLCD 발매 포스터(말간 피부의 두 소년이 림술을 맞대고 부둥켜안은 채 행인을 희롱하는)에 현기증을 느꼈던. 내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나타난 그녀. 여자 오타쿠였다. 아키바에나 있을 법한 오타쿠들이 성별만 바꾼 채 어두운 이케부쿠로를 활보하고 있었다.
궁금했다. 아름답고 평범하며 우아한 그녀들은 왜 엄마에게 말 못할 어둠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쩌서 욕망의 에너지를 분출하며 B급 서점의 어두운 서가에서 표지부터 후끈한 여성향 동인지들을 들추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녀들의 포르노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다. 이 글은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다섯 번쯤 갈아엎어야 했고 무엇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웠다. 긴 시간 19금 BL 만화, 소설, 드라마CD에 게이아동까지 그녀들의 욕망의 동기를 탐구할 수 있는 여러 장르의 게이포르노를 모아보았다.*2 이들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충격과 공포는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하자. BL만화와 소설 모두 즐거리의 클라이막스는 두 남자 주인공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섹스였다. 신음소리와 흥건한 땀과 정액이 지면 밖으로 흘러나올 것만 같은 몸시 환출한 섹스. 드라마CD에선 시각적인 묘사가 결여된 만큼 섹스신마다 성우들이 훌륭하게 신음해 주었다. (하악) 의외로 게이아동이 포르노적 매력은 달랐다. 실용적이고 담백하게 할 것만 하고는 아쉽게 끝나버렸다.

게이섹스*3를 즐기는 이들의 성적정체는 다양하다. 레즈비언과 바이, 이성애자 여성들 모두가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같은 목적과 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 심지어 현실 세계에서는 아오안인 '게이'를 소재로 그녀들에게는 기존의 남성향*4 포르노와는 차별화된 어떤 것이 필요했다. 그녀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정을 다양하게 구현한, 그녀들이 탐구하고 싶은 사람들에 관한 그녀들의 포르노 말이다.

*1) BL은 Boy's Love의 약자로 일본에서 게이포르노를 폭넓게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게이섹스를 포함하는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틀어 '야오이' 혹은 'Y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본어 '야마나시, 야미나시, 오치나시'의 약어로, 스토리의 구성력이나 기술전결 없이 섹스의 묘사에만 치중하는 점을 경시해 비꼬는 의미를 내포한다.

*2) 만화, 소설, 드라마CD는 모두 일본에서 출판된 것이다. 팬픽이나 동인지, 영미권의 슬래쉬 픽션, 게이섹스가 등장하지 않는 소프트 포르노 등은 제외했다.

*3) 일반적으로 게이는 여성 동성애자와 남성 동성애자 모두를 총칭하지만 이 글에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한다.

*4) 시종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 포르노를 의미한다. 스토리는 전무하거나 무의미하며 여성상품화, 관계지양적, 섹스지향적 포르노인 경우가 많다.

섹슈얼리티의 재구성

그렇다면 왜 하필 게이포르노일까? BL물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현실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그런 남성상'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남성이지만 여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현실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가상의 남성상은 때로 섹시하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남성의 힘과 권력은 잃지 않은 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통찰력 있는 마인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섹스에서도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만족스럽게 해주고자 애쓴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정서적 책임감과 신념 또한 강하다. 비현실적인 만큼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다.

게이포르노에 여성캐릭터가 부재하는 것 역시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게이섹스의 창조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장점만을 결합한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가공의 섹슈얼리티를 만들어냈다. 이 유토피아에 굳이 '방해꾼'인 여성캐릭터를 첨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이포르노에서의 여성이란 주인공들의 특별함을 부각시켜 줄 열등하고 사악한 존재이거나 별 존재감이 없는 부수적인 인물로 그려질 뿐이다. 게이포르노에 견줄 수 있는 레즈비언 포르노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세계의 여성상은 남성의 그것과는 달리 억압적이고 부당한 규제들로 견고하게 형성되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레즈비언 캐릭터들에게 현실세계의 여성상을 탈피한 독특함·부러움과 설렘을 유발할 만큼 매력적인·을 부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고의 섹스 그 이상의 관계

그녀들이 멋진 두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망상을 시작한 이래로, BL물은 필연적으로 포르노의 특성을 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이 침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그녀들의 상상에 의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칠 줄 모르는 섹스라이프를 즐기는 주인공들은 고도로 민감한 성기를 지니고 있으며,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최적화되었다. 섹스 중간 중간 사랑과 쾌락의 감정들을 끈적한 미사여구로 속삭일 수 있는 능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섹스가 오랄이나 패딩으로 시작되었어도 끝은 항상 항문섹스로 '황홀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삽입섹스 만능주의 음모론을 의심하고 싶을 정도로, 현실세계와 다르게 게이포르노에서 항문섹스는 섹스의 완성이자 꽃으로 칭송받는다. 그녀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결코 느껴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한 환상과 동경은 게이섹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위에서 게이야동이 게이포르노의 다른 장르들에 비해 덜 매력적이었던 까닭은 기존의 남성향 포르노와 차별화된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많은 게이포르노들이 섹스까지의 통과례로 여성취향의 드라마를 탄탄하게 깔아놓는다. 소녀만화나 로맨스소설과는 달리 소비자는 동일시의 과정 없이 제3자의 입장에서 여유롭게 그들의 연애를 관망할 수 있다.



성정체성의 부정

레즈비언으로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대부분의 게이섹스 포르노가 주인공들의 성정체성에 관한 의문에 침묵한다는 점이다. 남성들의 연애와 섹스를 다루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외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많은 경우 주인공이 게이 혹은 양성애자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 '그는 게이기가 아닌 정상적인 남자인데 어쩌다보니 사랑하게 된 상대가 같은 남자일 뿐이다'의 패턴이다. 다른 경우는 성정체성이 무의미한, 금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세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선 주인공이 남자를 사귀어도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들에게 파트너를 소개할 수 있으며, 다정한 커플로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호모포비아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이 성별의 구분 없이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감미로운 유토피아로 위장된 외면의 세계에 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엄연히 동성간의 섹스라는 코드를 빌려와 이 섹스를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정작 동성애자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간과하는 것은 이성애중심주의세계의 호모포비아적 사고의 연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다.*5



허심탄회

게이섹스 포르노의 의의는 전에 없던 남다른 성적 판타지를 상세히 묘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데 있다. 인간을 여성과 남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양분하는 이 시대의 정체성 정치학이 일으킨 성정체성의 분극화를 초월하여 LGBT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창조한 것이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이섹스의 다양한 장르들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섹슈얼리티와 정체성에 관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현실 세계는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그녀들은 바로 그 섹슈얼리티에 도전하고, 정체성을 그녀들의 시각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다.*6

*5) 동성애코드를 비극과 고난의 드라마로 채우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유쾌하지만 사소하게, 이 세계에 만연한 무관심을 거부하는 일들도 가능하다. 가령 '호모가 아니라 게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거나(여마다 유기)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상상만으로 게이섹스를 그려 벌어먹어 왔다'고 고백하는 일들(요시나가 후미)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었다.

*6) 이 글의 부제는 현리 켈킨스(2008)의 「팬, 블로거, 게이머-참여문화에 대한 탐색」의 한 절터인 <게이섹스에 끌리는 평범한 여자들>에서 차용했으며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다.

여성을 사랑하는 레즈비언, 여성과 남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바이섹슈얼.
두 개념 모두 성소수자라는 커다란 개념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같은 울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 간의 관계는 그렇게 화목하지만은 않다.
레즈비언이나 바이섹슈얼이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 성소수자가 그 성소수자(?)로 보이겠지만, 많은 수의 레즈비언들이 바이섹슈얼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일부의 레즈비언들은 바이섹슈얼들을 꺼리거나 심하면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이나 친구의 소개로 건너건너 만난 사이에서는 바이섹슈얼들이 처음에 자신이 바이라고 먼저 밝혀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이인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하면 연락이 점점 뜸해지며 어느새 전화번호부에서도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레즈비언들이 헤테로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혔을 때 상대방이 자신을 꺼리거나 배척하면 상처를 받듯이, 바이섹슈얼도 레즈비언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다. 유치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존재들에게 배척을 당하니 상처받은 정도는 헤테로들에게서 배척당한 경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모든 레즈비언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상당 수의 레즈비언들이 바이섹슈얼에 대해서 나쁘지 않거나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섹슈얼들이 질타(?)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을 옹호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아주 아주 적어도 필자와 필자 주변에는) 바이섹슈얼들을 꺼리는 레즈비언들이 꽤 많고 그러한 경향은 온라인,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공간에서 더 심해진다.

왜, 그 일부의 레즈비언들은 바이섹슈얼을 좋아하지 않는는 것일까?
사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에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유를 짐작한다는 것은 선입견과 추측으로 얼룩져서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이유 하나 생각해내지 못하고 글을 맺기가 좀 민망하여, 필자와 변날인들과, 필자의 친구와 대화를 하며 내린 결론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 대한 불편함으로 생기는 거부감'이었다.

많은 수의 레즈비언들이 바이섹슈얼을 비난할 때 하는 말이 '여자를 만나다가 남자에게로 도망쳤다'라는 말이다. 연애를 할 때 누군가와 연애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감정을 느껴 예전 사람과의 연애를 정리하고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은 이성애자들의 연애나 동성애자들의 연애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바이섹슈얼이 여성을 만나다가 그 여성과 헤어지고 남성을 만나는 것을 헤어짐이라기보다는 갈아탄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레즈비언들이 많다.
사실, 어느 정도 생각해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보수적인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지금은 그나마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연애나 정체성을 공공 숨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여성과의 연애를 저버리고 남들에게 알릴 수 있고, 조금 더 '편한' 연애를 선택하며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레즈비언과 바이섹슈얼의 소통

by 나나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그 바이섹슈얼은 단순히 한 사람과의 연애를 끝내고 다른 사람과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그 사람들의 성별이 우연치 않게 여성과 남성이었다는 것이지, 모든 바이섹슈얼이 '환승'을 목적으로 남성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생각으로 남성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소수일 뿐, 그 소수의 사람으로 집단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이제는 지겨워서 피식 웃어넘겨버리는) 된장녀=이대생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은 행동일 것이다.

많은 수의 레즈비언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는 여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성이었을 뿐이라고. 바이섹슈얼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상대방의 성별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다보니 여성이었고, 또 다른 때에는 남성인 것 뿐이다.

성 정체성은 유동적이다. 스트레이트이었던 사람이 레즈비언이 되기도 하고, 게이였던 사람이 스트레이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일생에 걸쳐 변하는 성적체성에 공공 묶여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편을 가르고 벽을 만드는 일은 그리 넓지만은 않은 우리의 세상을 점점 좁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다. 물론 바이를 좋아하지 않는 개인의 취향을 비난하면서 변화시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성소수자들에게 보수적이고 다소 적박한 우리나라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살아간다면 자신을 이해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자신이 직접 겪은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멀리하거나 꺼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의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앞으로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아까운 일이다. 조금만 더 관대하게 상대방을 바라봐주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편한 말과 결론이라 타자치는 손가락이 조금 민망하지만, 편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도덕책에도 늘 편한 얘기만 적혀져 있지만 나쁘거나 틀린 글은 별로 없다. 물론 때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편하다는 말은 비교적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말의 동의어가 되기도 할 것이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동글게 동글게.

레즈비언 딸내미와 엄마, 대화하다



엄마, 나
레즈비언
해도 돼?

by 람다

보통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을 부모님께 숨기려고 한다. 만약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충들은 볼 보듯 변하기 때문이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레즈비언인 것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계셨다. 다행히도 나의 어머니는 내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려고 노력하셨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이성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는 입에 거의 올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나는 레즈비언 딸로서 레즈비언 딸을 둔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딸: 엄마, 딸이 레즈비언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부모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제약도 있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는 부분이지. 그래도 네가 좋으면 된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 그런데 동시에 균형이 잡힐까라는 염려도 생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딸: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이라고요? 왜요?

엄마: 물론 좋으니까 같이 다니는 것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남녀의 조화라는 게 있잖아.

딸: 남녀의 조화라. 남녀의 조화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객관적인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엄마: 음양의 조화라는 것이 있잖아. 남녀의 교접상태에서 느끼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을 피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하나.

딸: 제가 보기엔 음양의 조화라는 건 남녀가 아니라한 사람의 몸 속에 이미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녀가 양음으로 나뉘어 진건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지. 굳이 음양의 조화를 찾는다면 여자, 남자라고 나누고 그 반대 성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성에 상관없이 내가 음보다 양이 강하면 양보다 음이 강한 어떤 사람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닐까요.

엄마: 글썄. 엄마는 이성애자로 살아왔고 내 삶에서 겪어왔던 것이 조화롭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여자라는 삶을 선택했을 때 남자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특히, 성적인 것이 인간 삶에서 중요한데, 두 성으로 성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남녀를 경험하기 위해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딸: 두 성으로 성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해도요? 뭐, 쉽게 말하면 간성*도 있잖아요.

*간성(intersexual): 의학적으로 남녀의 판별이 불가능한 성. 양상은 사람마다 달라 남녀 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결모습은 남성이지만 난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간성은 어렸을 때 어느 한쪽 성으로 수술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길러진다. 간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100명당 4명이라는 학설부터 2000명당 1명이라는 학설까지 분분하다.

이처럼 간성의 개념은 생물학적 남녀이분법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예로 꼽힌다.

엄마: 호르몬 작용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딸: 호르몬 작용?

엄마: 엄마는 수컷이 암컷을 끌어들이듯이 사람에도 남자가 여자를 끌어들이는 동물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봐. 그래서 레즈비언은 어떻게 보면 성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딸: 레즈비언도 할 건 다하는데요?

엄마: 할 건 다해도 남성 호르몬이 없잖아. 둘 다 어쨌든 여자니까. 남자와 여자와 하는 것은 호르몬이 다른 데에서 오는 어떤 조화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여자랑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 어찌 보면 좀 역겨울 것 같은데 한쪽 면에서는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 육체가 양면성을 지니듯이 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

나도 똑같은 할매 하나 구할까? (웃음)

딸: 그럼 난 좋겠다~

엄마: 마음에 드는 여자 애인을 구하러 다녀야겠어. 나이 들어서는 그게 나올 수도... 남자들은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고, 할매는 냄새도 나잖아. (웃음) 여자들은 일단 서로 감싸주는 게 있으니까...

딸: 맞쵸.

엄마: 아, 그리고 보니 서로 애정결핍이네. 감싸 주기를 바라고 지배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성애 관계를 도피하는 것 같은데.

딸: 지배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남자한테 지배당하기 싫어서 여자를 사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그래도 지배당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은 있는 거 아냐. 결국 자존심이 강해서 레즈비언이 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딸: 그래도 '도피'라는 건 아니죠.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굳이 레즈비언만 도피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것은 아까 엄마가 말씀하셨듯이 엄마가 이성애자로서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에서 살아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딸: 어쨌든 처음에 제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땠어요?

엄마: 좀 놀랐었는데 의외로 많이 놀라진 않았어. 레즈비언인 것 알기 전부터 네가 결혼생활은 안하고 혼자서 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많이 걱정은 안 되었어. 그리고 끝까지 네가 레즈비언일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물론, 네가 완전한 레즈비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피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결론은 네가 레즈비언인 것에 대해 사실 찬성하지는 않지만 널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 레즈비언으로 살거나 말거나 재미있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의 가장 큰 바람은 네가 이성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것이 조화롭다고 생각하니까.

딸: 마지막으로 레즈비언 딸을 두어서 제일 걱정되는 점이려면 그런 것은 없어요?

엄마: 아빠가 네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이 가장 걱정된다. 너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 5,60대 남자가 그렇듯이 가부장적인 관념이 많아서. 자기 스스로 힘든 것이지.

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되도록 아빠한테 밝히지 않게 해야할 것 같아요.

엄마: 응, 가능한 아빠를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상처를 안 주는 것이 좋겠지. 레즈비언인 걸 드러내면 외국으로 뛰어야 할지도 몰라. (웃음)

딸: 그럼, 제가 집에 자주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걱정 안 되세요?

엄마: 밖에서 안 들어오고 해도 걱정은 안 돼. 남자랑 그러면 걱정 될 것 같은데, 여자랑 있는 거나 남자랑 있는 거나 똑같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 남자랑 있으면 무슨 일이 큰일이 있을 거 같고 여자들끼리 있으면 편안할 거 같고.

엄마는 네가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면적으로 생각되는 것 같아.

알고 있지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 소통은 생각의 차이를 가시화하고 갈등을 극대화 할 수 있기에 두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모녀가 입을 열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나는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각의 차이 이면에 존재하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침묵을 갠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가족을 구성할 권리

by 수라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 이런 글을 발견했다. <남자 동성애자들이 키운 아이들도 나중에 동성애자가 될까?>¹⁾ 이성애자들이 궁금해 할 법한 자극적인 질문이군. 생각했다. 별 내용은 없는 찝찝한 글이었으나 심리학자인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였다.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럼 이성애자들이 키운 자녀는 모두 이성애자가 되겠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질문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문제다.)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양육자들의 성적체성은 자녀의 성적체성과 무관하다. 다만, 동성애 커플의 양육이 자녀에게 미치는 단 하나의 단점은 '결별할 가능성이 이성애 커플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동성 커플이든 이성 커플이든 싱글 양육자이든 자녀의 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장

나와 내 파트너는 2년째 한 집에 살고 있다. 아침에 함께 등교(출근)하며 저녁에 함께 하교(퇴근)한다. 저녁밥을 지어 먹고 아홉시 뉴스를 본다. 그리고 함께 잠든다. 그녀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 명절이면 그녀의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아하실지 고민한다. 평생을 함께 할 생각으로 장기적인 생활자금 계획도 함께 세우며, 가까운 미래에 아이를 가질 계획 또한 갖고 있다. 명백히 사실혼 관계이지만 우리의 관계는 완전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사회에 의해 '동거'라고 명명될 뿐이다.²⁾

나는 그녀의 직장의료보험에 배우자로 등록될 수 없고, 그녀는 기혼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자녀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직장에서 직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들을 누릴 수 없다. 미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야근이나 주말근무 등을 떠맡을 확률도 더 높다. 사소한 것이지만 신용카드의 가족카드 발급이나 통신사의 패밀리 멤버십 가입도 불가능하다. 헤어진 이후의 문제는 더욱 보장되지 않는다.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고, 평생을 함께 하고 사별했다라도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산이나 연금은 다른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다. 인공수정이나 입양은 불가능하며 내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해 함께 양육하더라도 이 아이는 법적으로 그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 된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테고 자녀를 기르며 얻는 행복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텐데 기이하게도 동성애자 인권 운동 진영에서조차 동성 커플의 양육권에 대한 언급은 미미하다.

변화의 움직임

다른 국가들이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종류다. 첫 번째로 결혼은 허용하지 않지만 이성 커플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권리가 동성 커플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2004년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파트너 등록제 단계를 거쳐 200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에 더 나아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폴란드, 미국 버몬트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동성 커플에게 파트너 등록제나 시민결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영국,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결혼한 동성 커플은 부부 사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이성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인권기본법을 발표했다.

가족의 의미 확장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서의 가족제도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굳이 불합리한 가족제도에 편입할 이유가 있는가를 고민한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기존의 가족제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이미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가장가정, 입양가정, 무자녀가정들이 존재해 왔다. 여기에 동성커플 가정, 혈연관계도 연인관계도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뤄 사는 공동체가정들이 어울려 소수의 가족형태가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벽장 밖으로 나와 행동하라

우리 어머니는 과거에 집안에 남자가 없어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서러움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셨다. 당신의 딸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상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많은 이들이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 행동하기를 원한다. '정상(normal)'이라는 의미조차 의심스러운 정상가족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

*1) 심리학,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다 : 일상생활에 심리학은 어떻게 적용될까? / 찰스 L 브룩스, 마이클 A 처치 공저; 정명진 옮김.

*2) 실제로 국내에서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2004년 결혼한 남성 동성커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받았지만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따라 혼인신고 접수불가 통보를 받았다.



채식

하는 그녀

by 지은

: 양산형 스테레오타입



커밍아웃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히 여겨지고, 그에 따라 채식주의의 성소수자 모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사이버 포럼 4개를 살펴본다. 모두 올해 시작한 포럼이며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새벽에도 새로운 의견이 올라온 딱딱한 포럼도 있었다.

채식주의-레즈비언 고정관념?

각각의 주제는

1. 왜 부처들은 채식주의자인가? (Why are all you dykes veggie and vegan?)
2. 레즈비언과 채식주의자 간의 상호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lesbian and vegetarian/vegan)
3. 왜 레즈비언들은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Why do lesbians feel the need to be vegetarians?)
4. 채식주의의 성소수자 모여라 (Any other LGBTQ VB'ers?) 였다.

포럼 참가자는 대부분이 성소수자였고 채식주의자의 비율은 비교적 높았으며 (4번 포럼은 채식주의자인 성소수자들이 진행해나갔다), 발제자는 "주위 사람들은 나의 여성주의적 시각과 채식 식단으로 내가 레즈비언일 것이라고 어림잡는다."라거나 "요새 레즈비언 채식주의자가 많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거의 모든 포럼 참가자들이 고정관념이 있음을 인정했고 고정관념화 되는 것을 경계했다. 채식주의자와 성소수자(특히 레즈비언)를 자연스레 연결짓는 풍토에 의문을 던졌으며 의견은 이하 두 번째 주장을 중심으로 크게 하나로 모이는 형태였다.

하나, 이것은 고정관념일 뿐이다. 퀴어인 것(레즈비언인 것)과 채식주의자인 것은 독립적인 관계이다. 전자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후자는 선택사항이다. 이성애자인 것과 육식습관을 가진 것을 특별히 연관짓는가?

둘, 둘의 관계는 독립적이지만은 않다. 둘은 모두 억압받는 대상이고 그들끼리는 더욱 온정적이고 서로를 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유와 해방을 공동 목표로 삼기에 친화력이 강하다는 맥락에서도 상통한다.

공식 즐거기가 견고 있는 좁은 길

채식주의자인 것과 레즈비언인 것. 이 둘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주류(즉, 육식습관과 이성애주의/가부장제)와 마찰하는 비주류. '성정치'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억압은 부재지시대상으로 남성성을 은유한다.

("남자라면, 그리고 운동선수라면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없지!"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덧붙여 포럼에 게시된 한 이성애자의 의견에는 '부치는 고기/페니스를 싫어하므로 채식을 한다 (dykes are all vegan cus they hate meat/penis.)'도 있었다. 채식주의자인 것과 레즈비언인 것을 남성혐오와 연관지은 사례. 채식주의자인 남자가 들으면 혀를 차겠지만).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확장과 세력화를 이룬다면 소(?) 커뮤니티 간에 더 많은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화로 인한 피해자 양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그리고 타국의) 경직된 분위기는 분명한 장애물이다. 레즈비언-채식주의자-페미니스트 (중산층-좌파-히피는 옵션). 어느 상황에서 그 누구를 대상으로 끼워 맞춰도 바람직한가? 이화여대생-골페미 (패셔너블은 옵션)를 떠올려보자. 동일한 공식제조에 치이는 희생양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 그저 다양성을 돈우자. 그뿐이면 된 거. 외국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축제에서 어떤 이성애자가 들었다는 피켓 문구로 "Straight but not narrow"가 있었다고 한다. 주류의 눈은 굴러다니는 구슬을 한 줄로 꿰어서 흥미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길이 너무 좁아지면 주의도 필요한 법이지.

육식의 성정치

캐롤 J. 아담스 지음

여성주의자이자 채식주의자인 저자는 육식이 가부장제, 채식이 여성주의와 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저자는 소설과 팜플렛, 각종 발언을 통해 육식의 가부장제적 의미를 탐색한다. 예컨대 육식을 멀리하는 남자를 '사나이답지 못한 인간'으로 놀리는 것, 여성 몸을 '고깃덩어리'에 비유하는 것은 육식이 남성지배 및 여성억압과 밀접히 연관됐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자는 육식과 남성성 간의 은폐되어있는 연관성을 밝혀낸 뒤 가부장제 소비문화를 뒤집기 위해서는 고기 식사를 중단하고, 채식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0여년 전 미국에서 처음 출판됐을 때 당시 유행하던 채식주의의 인기에 편승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채식주의-여성주의 역사를 고찰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다수가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묻다

소수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되새겨보며 by 김네

아주 동물적인 반응이다. 위협이나 두려움 앞에서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신체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 영역에 대한 방어력도 뛰어나다. 뜨거운 것을 마시면 절로 그것을 뱉거나 차가운 것을 만지면 절로 손을 떼버리는 것 같은 민첩한 운동신경은 사상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한다.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도 이것을 지지해주는 '내 편'이 있다면 비교적 괜찮다. 할 만한 게임이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적 우세가 가지는 권력의 참 힘을 말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토록 정당한 체제라 믿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운운하는 곳이 바로 정치계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디어를 통해 안방으로 전해진다. 사실 우리들도 생활에서 민주주의 타령을 하며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는다. 어떤 정치인이든 자신은 민주주의의 수호령인 듯 말한다. 사실은 우리들도 마치 '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누군가를 비난한다. 다들 한번 쯤은 정치인들을 보며 혀를 차고 샅대질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혹자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비판했듯이 이것은 여러 가지 보완장치가 없다면 흡사 독재와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모두에게 권력이 있다고 했을 때의 '모두'가 누구인지. 모두가 주인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사실은 불확실한 대중들을 등에 업은 민주주의란 제도야말로 상속 권력의 실체를 보여주곤 한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민주주의에서 소수성이란 얼마나 희박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것인가. 민주적 선택의 정당화 근거가 '다수'에 있다고 할 때 그 다수란 단순히 수가 많고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동성애는 최악이라고 말하는 그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들 다수가 지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지난 중운위 회의에서 기존의 자치단위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에 대한 중운위 대표들과 총학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나는 그들이 '다수'라고 생각했다.

차이를 통제하고 올바른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다수'이다. 중운위 회의라는 공간이 얼마나 권력적으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알 수 있다. 그것이 비록 각 단대 대표들과 총학의 회의자리라 하더라도, 그들 자신을 뽑아준 이화인들이 몇 시간 동안 한마디 하기 위해 기다린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방청 온 이화인들은 대표들이 발언권을 허락해 주는 한에서 한 사람씩 말할 수 있고 그들은 산발적으로 여러 명씩 질문과 비난을 쏟아 부었다. 그 권위적인 배치야말로 민주주의가 보여주는 '불량 다수'가 무엇인지 말해준다. 이들은 '말'을 선별할 권한을 가진다. 그 공간에서 그들은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굳힐 수 있게끔 하는 자들에게 발언을 허락해 준다. 그러한 권위적인 공간은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나 발생가능하다. 그리고 소수성이 민주주의에 절실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소수 정치란 통합된, 정상화된 질서에 균열을 낸다. 정상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체계 밖에서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에 저항하는 주체들이 바로 소수 정치를 이끄는 자들이다. 이들은 질서로부터 탈주한 이름 없는 풀뿌리다. 포획될 수 없다는 점, 새로운 삶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이 이들의 특징이다. 소수성이란 절대적이라 믿어졌던 규범과 체계를 초월해 일상의 영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발현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닌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가장 민주적인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개인과 집합들을 그 구성체로 가져야만 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하지만 이것은 망각된다. 아니, 아주 교묘하게 은폐된다. 우리는 장애인을 보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위로를 얻는다. 이때 내가 가지는 소수성은 인지되지 못하는 어딘가로 숨겨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며, 한국 보수 진영의 권고이며, 그렇기에 철학 없는 현 총학생회가 (의도치 않게-의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목상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니 나는 이를 탄압하는 지배집단의 어떤 체계에도 무관심해도 좋은가? 우리 사회는 소수자에게 지나치게 오만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경직성은 여기서 연유한다.

민주주의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다. 이것을 구체적인 상으로, 세밀한 현실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다.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것은 소통을 위한 감수성의 기반이 되어준다.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의 결정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수들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소수자의 자기 긍정은 그것을 인정하는 풍토 속에서 발전적으로 확장된다. 총학과 중운위의 회의는 그 같은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한 공간이 무엇인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 소수자라는 말을 단순히 수가 적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던 한 단대 대표를 떠올리면 대의제에 대한 회의도 절로 들었다. 소수적 고통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가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차별적으로 가해진다. 이들의 고통은 단순히 방관하며 바라봐도 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가해지진 않지만, 나의 것이다. 소수적 감수성은 소통이다. 말이 말을 낳는 민주주의의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2009 제10회 퀴어퍼레이드 참여기

너와 나, 무지개깃발 펄럭이며
청계천을 행진하다

by 박하



하늘은 참 파랗다. 6월 13일 청계천, 어언 4년째 참가하는 퀴어 퍼레이드다. 이번 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 단체를 포함해 퀴어문화축제기획단에 지원이 많이 줄었지만 다행히도 참여자가 많아 1500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참여 단체들이 꾸려놓은 부스와 전시물들이 펼쳐져있는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축하 공연들이 끝나자 행진 트럭*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며 모두가 발걸음 당당하게, 함께 걷는다. 대열을 지어 행진하는 사람들, 차마 행렬에 끼지는 못해도 멀찍이 떨어져 대오를 따라 걷는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시선들이 움직인다.

일년에 단 한번, 이성애만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보여지지 않던 수많은 퀴어들이 당당히 존재를 드러내며 별이는 자긍심 축제이다. 모두의 얼굴에 당당함과 미소가 가득하다. 트럭 위에서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는 예쁜 언니들, 'free gay hug' 간판을 들고 환히 웃는 청년, 화려하게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 드랙퀸*, 무지개 우산을 펴고 손잡고 걷는 레즈비언 커플,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외국인들. 손팻말을 들고 '성소수자 차별반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선선한 바람에 휘날리는 무지개깃발에 가슴이 뭉클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소중하다.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모두가 한데 어울려 기쁨의 행진을 하는 이 순간만은, 내가 성소수자임이 행복하다.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서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 곳에서는 아무도 '소수자'가 아니고 누구도 무시받거나 차별받지 않는다. 이 행진은 내가 아는 가장 유쾌한 시위-축제이자 사회와의 소통 방식이다.

*1) 퀴어퍼레이드는 행렬의 중간중간에 참가 단체의 트럭이 서행하며 위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일반 참가자가 뒤를 따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드랙퀸(drag queen)은 여장남자를 말한다. 과장된 화장과 옷, 행동 등을 통한 일종의 캐릭터 쇼맨십이며, 성전환여성(male-to-female)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 행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모두 이성애자는 아닌 것처럼, 이 행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소수자는 아닐 것이다.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는 이성애자 친구들, 인권단체들, 그리고 기독교단체인 한기연의 깃발도 함께 한다. 아니, 애초에 한 사람을 동성애자/이성애자로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성적체성은 이분법적이지 않은 스펙트럼 안에 위치하고, 한 사람의 삶에서는 정체성의 틀로서 규정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는 어떤 이름 안에 특정한 성향을 밀어넣고 손가락질하며 편견을 키워낸다.

행렬 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촬영 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행여나 사진이 찍혀 유포되면 아웃팅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웃팅의 우려 때문에 한국의 퀴어퍼레이드는 10년이나 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홍보되지 않는 편이다.

행진이 마무리될 때야 늦는다면 애인이 도착했다. 아쉬워하는 내게 애인은 말했다. 일찍 왔어도 자신은 퍼레이드에 참가하지 못했을 거라고, 촬영 금지 스티커를 붙임으로서 내가 성소수자로 간주되는 것이 두렵다고.

청계천 구간을 한 바퀴 도는 짧은 행진이 끝나자,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순간의 해방감을 만끽한 이들은 다시 정체성을 숨기고 이성애중심적인 사회 안으로 스며들어, 다음 해 이날까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잠깐의 꿈이 끝나면 현실이 다가온다. 여전히 나는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부모님께 애인을 소개시켜줄 수도 없다. 여전히 주변에는 가족에게 아웃팅 당한 친구의 슬픈 소식이 들려온다. 현재의 결혼제도 안에서 그녀와의 미래는 오리무중이고, 성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걸어야 한다.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역설적으로 퀴어퍼레이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날까지.



2005년 브라질 상파울로의 퀴어퍼레이드. 200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축제라고 한다. 이외에도 호주의 마르디 그라(Mardi gras) 등 전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퀴어퍼레이드가 존재한다.





그녀의 도전이 남긴 것들 최현숙,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by 나무 (기고)

작년 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되던 때, 버스를 타고 종로를 지나는데 어느 현수막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커밍아웃, 레즈비언....' 이걸 이런 현수막에서는 도통 본 적이 없는 신선한 단어! 이런 단어를 전면에 내걸고 나온 사람이 누구이고 하니 진보신당의 최현숙,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였다.

영화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는 바로 그녀와 그녀를 지지하고 함께 일하는 선거운동본부 (이하 최현숙 선본) 사람들이 함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과정을 기록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올해 인권영화제에서 처음 이 영화를 만났던 밤,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던 많은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

시작은, 흥분과 환호였다. 최현숙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 모습을 보는데, 현수막을 종로에서 발견하던 바로 그 날이 생각나면서 벅차올랐다. 여성이자 동성애자, 소수자 안의 소수자의 포지션에 서 있는 사람의 출마라니. 그것도 독선과 거짓의 대한민국을 커밍아웃시키겠다면서 말이다. 물론 정당 정치라는 체제에서 정치인 한 사람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소수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미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 진보신당 당원이 '이제 막 시작하는 정당이 레즈비언 정당으로 오해를 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나쁠 건 뭐 있나'하는 생각에 어이없어진 게 나쁜만은 아니었겠다.

그러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했었다. 최현숙 선본 사람들이 종로 곳곳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반응들은 사실 나에게도 의외의 것이었다. '레즈비언 출마'만이 이슈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걸 원한 건 더더욱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아마도 선본 안의 사람이 이야기하듯, 성소수자의 일상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레즈비언 정치인 출현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종의 가시거리일 뿐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한 여성정치 실현'을 외치는 최현숙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녀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 아홉 글자 안에 함축하기엔 너무나 많았을 텐데. 단지 생물학적 여성이 실현해내는 정치와는 또 다른 의미였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 희망을 보게 되었다.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했던 마지막 부분. 선거운동을 끝마치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는 바로 그 때 말이다. 14일이라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치지 않고 신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녀들을 보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현숙 후보는 낙선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선거는 당선 여부의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선거를 치러내는 과정에서 그 선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화두를 던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했는가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나는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를 통해 그/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다.

1%가 아니라 100%가 잘 사는 사회. 소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작지만 묵직한 발걸음이 이제 한 걸음 옮겨졌으니 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녀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다. 온 몸으로 그 시작을 알린, 최현숙 선본에게 다시금 박수를 보낸다.

레즈비언이자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변태소녀들.
1학년 고교부터 4학년 졸업반까지 학번과 전공은 다양하지만,
졸업 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걱정과 고민들은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까, 동거와 결혼은 어떻게 다를까,
아기는 어떻게 할까, 어떤 가족의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살까,
시골시골 변태소녀들의 수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박하: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졸업 후 레즈비언으로서
어떻게 살 것 인가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자리예요. 결혼과 동거, 가족, 아이
등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일단 연장자
김네부터!

김네: 나는 일단 졸업하고 취업해 직장인으로 살다가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나는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야.
자녀도 갖고 싶고, 근데 여자 파트너와는 보수
정권이 계속 되는 한 아무래도 힘들겠지.
기본적인 편의와 인정이 결혼제도 태두리 안에
있으니까... 동거라도 나는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해. 상대방만 여건이 맞으면...

박하: 그럼 수라는!

수라: 하하하하...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가족?
아기 수라를 낳아야죠.

박하: 어떻게?

수라: 어떻게, 그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생각으로는...
정자를 기증받아야죠. 그리고 분가를 하겠죠.
*수라는 파트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람다: 아기수라는 언제쯤?

수라: 글썄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웃음)... 웬만하면
졸업 전에 낳고 싶은데, 문제는 증여자죠.
₩그리고 적절한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김네: 파트너하고 합의는 된 거야?

수라: 하하, 네.

람다: 왜 졸업 전에 하고 싶어요?

수라: 졸업 후라면 진학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어떤 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고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학부 시절에 출산을
한다면 아무도 나에게 그런 제도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이런
가족을 형성한 후에 제도에 들어가는 거죠.

김네: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아기가 있냐고 할 수 있잖아.

수라: 요새 이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네: 이혼한 것처럼 할 거야?

가장 쉬운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위장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럼 너희 어머니께는 내가 여자 파트너가 있고
아이를 가졌다는 걸 말 할 거야?

말 해야죠, 저는 신뢰받는 딸이니까요. 하하하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게이커플을 하나 발견해서 각각 위장결혼을
하는 거예요. 기존자의 경우는 직장에서는
어디서든 굉장히 혜택이 많잖아요. 결혼만 해도
축하금으로 50~100만원씩 나오고,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동성커플은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위장커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잘못
되면 복잡해진다는 거...

김네: 사귀지 그렇게 오래 된 편은 아닌데 (*약2년),
그 정도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야?

수라: 사실 10대 때는 비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정 계획을 세우게 된 데는...

김네: 파트너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거야?

수라: 네. 그리고 좋잖아요, 베이비.

대담 :: 변태소녀들의 미래, 레즈비언으로 살아남기

지은: 그럼 아기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걸로
등록을 하실 거예요?

수라: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해외에서
남아서 우리나라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거나.
우리나라는 독신 입양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일 경우에만 나의
가족관계에 등록될 수 있으니까, 내 파트너와
아이는 어떤 관계도 되지 않는 거죠.

박하: 그럼 다른 사람~ (다들 순서다툼)

사과는? 플라토닉에서 벗어난 사과.

사과: 일단 지금의 생각을 말하자면, 난 소위 말하는
비혼자이고 결혼에 대한 뜻이 전혀 없고.
동거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특히
난 아이를 갖는 데 대한 생각이 제로이기도
하고...

근데 결혼을 한 동성애자 커플은 결혼을 안 한
커플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 결혼을 한 경우는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
그렇게 힘들다는 동성애자 결혼을 결정할
정도라고 (웃음). 현재는 비혼자로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지은: 결혼이란 동거의 차이는 어디에 두세요?

사과: 결혼도 사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결혼은, 전
결혼은 정말 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점이 많은(웃음)

김네: 근데 법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것도 있잖아. 내 파트너와
내가 동거관계라면, 명절처럼 친척들이 다

모이고 할 때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잖아. 가기 싫어, 피곤해 이렇게. 근데
결혼관계면 책임감이라는 말을 쓰면서 싫어도
선택할 수 없고, 가족의 화목이라는 이유로
가서 시댁 식구와도 친한 척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

사과: 그것도 동거에 대한 일종의 편견 아니예요?

김네: 그렇긴 하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동거 관계로도 난 충분히 그쪽 가족을 챙기고
할 수 챙기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쉽지 않을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결혼할 때
그 친척들한테 명품 이런 걸로 예단을 하는
것처럼 가족 관계를 새로 맺을 때의 관례적인
풍습들 있잖아. 돈으로 치덕치덕 바꾼 그런 것들
...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집안 수준이 맞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그런 문제들은 동거관계
에서는 없는데 결혼관계에서는 생기는 거잖아.

사과: 저는 친척과 제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안이 완전 극보수예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많이 얹혀요. 가족들끼리 돈 문제도 있고
의무감도 있고. 친척보다 더 친하고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기는 가족주의가 너무 싫어요.

람다: 그러면 김네는 그런 것이 싫은데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건, 어떤 대안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김네: 근데 여자랑 결혼하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수라: 그러게요, 동성 간의 결혼이란 건 어떤 의미
일까요.

김네: 아직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이 결혼이지 사실 동거지. 왜냐면 결혼이 되려면 법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 대신 동거에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지우는 거지. 신의를 지키기로 한달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혼례 풍습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되게 얽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과: 맞아요. 저도 싫어요. 전형적인 한국 이성애 결혼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과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대학 졸업하고 집을 댄 같이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도 계속 여자 둘이 계속 한 집에서 산다고 하면 가족들과 이웃들 보는 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입소문을 타고 퍼진다면, 직장예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워낙 바닥이 좁잖아요.

그냥 각자 집을 갖고 며칠 와서 자고, 다시 돌아가서 살고 이러지 않을까.

박하: 난 잘 모르겠어. 일단 나는 직업을 프리랜서 쪽이나 성소수자-여성 친화적인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편견이나 분위기 같은 것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누구랑 사나,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살아야지.

수라: 옛날엔 개나 한 마리 키운다더니(웃음).

박하: 응, 애인이랑 우리 고양이랑 같이 살 듯... 나는 파트너를 부모님에게 소개도 하고 작게나마 인정을 받기를 기대해. 가족이라 직업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웬만하면 그러저럭 살지 않을까 싶어. 물론 제도적인 혜택이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원가를 기대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두세 번 바뀔 때쯤이면...

난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한다? 왜냐하면,

백인과 흑인의 결혼이 합법화된 게 몇 년 전인지 알아?

일동: 몰라요~

박하: 40년밖에 안됐어. 1960년대 말에 미국에서 흑백결혼이 최초로 합법화됐단 말이야. 신기하지 않아?

난 예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진짜 놀랐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겨우 40년밖에 안됐어.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난 한국도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거라고 기대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난 공적 영역에서의 동성 파트너십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실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김네: 그에 대한 청춘의 생각... (*청춘♡박하*)

청춘: 저는 요즘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저 아이가 되게 좋아요. 이 마음이 그리 짝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동: 오글오글해~

청춘: 근데 저희 집은 벌써부터 결혼 얘기가 나와요. 사실 저 아이와 계속 간다면, 게이 위장결혼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결혼을 안하고 살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양보하는 셈 치고 게이와 결혼 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일단 엄마도 취업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라서, 언니가 결혼해서 시댁식구들과 관계가 좋으면 엄마가 저한테 큰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정도면 괜찮겠지 싶어요.

김네: 람다, 드디어 람다. (*람다♡김네*)

람다: 저는 옛날부터 결혼이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애인을

만나고 나서는 파트너와 함께 노후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그 방식이 흔히 말하는 '정상가족' 형태의 결혼이라면 전혀 하고 싶지 않지만, 여하튼 옛날에는 혼자 늙어죽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는 파트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홀로 있으면 외로울 듯. 그래서 유학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흐흐흑

김네: 왜 남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려 들어.(웃음)

람다: 강요는 아니잖아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ㅠㅠ

김네: 네가 유학비 대줘.

수라: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한 커플이라고 가정해보요. 그럼 한 쪽이 유학을 가더라도 기다릴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뜻이.

김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같이 움직일 이유가 생기고 여건이 되잖아.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그걸 왜 기다리나.

박하: 그렇다면... 미래에 한국에 동성 결혼 제도가 생긴다면, 현재 결혼제도에서 상대방만 동성으로 바뀌는 거잖아. 똑같이 일부일처의 1:1 배타적인 관계인거고, 일생을 제도 안으로 함께 묶이는 거잖아.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제도화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를 할 때 이야기되는 주장 중에, 지금 결혼 제도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성소수자가 억압받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것에 왜 동성애자가 편입 되려고 하느냐, 결혼제도를 해체하려고 해야지 왜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는가, 같은 얘기가 있거든.

김네: 그게 민감하고 어려운 게, 동거라고 했을 때는 파트너를 연결하는 고리가 감정적인 것에만 의존 해서, 서로가 맘이 안 맞으면 바로 헤어질 수 있는 관계를 떠올리잖아. 반면에 결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통 결혼에 우호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하지만 사실 결혼과 안정감을 연결시키는 것도 되게 사회화 된 생각이잖아. 동거라는 것도 아까 사과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관계를 평생 지속시킬 수 있는데도, 우리가 동거를 불안정하고 쾌락중심적인 삶이라고 생각 하게 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길들여 진 거니까.

그런데 그런 관념과 생각을 다 해체할 수 있을까, 결혼이라는 것을 해체하고 동성애 억압과 관련된 기제를 없애야 한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들으면 뭔가 급진적이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언급했던 관습적인 생각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결혼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 한다고 할 때의 그 동식화된 생각들을 다 바꾸진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도, 그게 완벽하게 포함된 범위가 없다고 말하 면서도 쉽게 그런 단어를 쓰고 쉽게 떠올리는 개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결혼/결혼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논란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순환적인 논쟁이랄까.

수라: 근데 왜 결혼제도를 해체해야 해요? 의미를 확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첫걸음이 동성 결혼의 합법화죠.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족제도 자체를 폐지한다기 보다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게...

김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문을 열어 주는 걸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집단들이 있어. 기존의 주류 집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두고 형태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 겁내고, '질서를 흐린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사과: 만약 질문이, 동성 결혼이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나 라면 당연히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렇게 묻는다면 무조건 YES인데, 내가 동성 결혼에 편입하고 싶다는 질문은, 명백하게 개인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김내: 가족을 해체시키자는 말이나 가족의 의미를 확대시키자고 하는 것이나 둘 다 매우 힘든 일이지.

람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얘기고.

김내: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적인 사회 법칙이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참... 어려워.

준비: 제도적인 혜택만 좀 받아도....

박하: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 두 명에서 평생 같이 살았는데 한 명이 죽고 나니까, 남은 한 명은 집에서 내쫓기고. 파트너십 인정이 안 되면 당연히 그렇겠지. 같이 모은 재산도 둘 사이의 법적인 연결 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혼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김내: 인연 끊고 지낸 자식, 그런 거.

박하: 맞아... 그리고 또 현실적인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주택 같은 금전적인 문제도 많고.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 파트너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다는 이야기도 들어.

그런 권리들이 신청하는 파트너에게 돌아가게만 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결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도적인 권리들만 해도.

김내: 그러니까 비혼자 중에서 한 명 정도 대리나 보호자 같은 사람을 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제도라도 만들어지면 좋겠지. 동성 결혼이 당장 허용되진 않더라도.

박하: 그래도 난 세상이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요새 비혼 여성이라는 화두도 많이 얘기들 하던데.

김내: 아, 나도 람다랑 나이들면 레즈비언 공동체를 구려서 살고 싶다는 얘기 했었어. 왜 영화 <메종 드 히미코>처럼 한 주택 같은 데서, 좋겠지.

박하: 그런 얘기 다들 꼭 하잖아, 공동체 얘기(웃음).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서울 뽕뽕 근처에 그런 비슷한 동네가 있다는 것 같은데.

사과: 우와, 진짜로?

박하: 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이 있잖아, 그렇게 밀집이 되면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가시화'가 성소수자 인권향상에 힘이 되겠지. 지금이 그렇게 초석이 깔아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

박하: 그럼 마무리의 의미로, 대안적인 삶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람다: 공동체?

김내: 제일 쉬워, 앞에 아무 이름이나 붙이면 돼. 뽕뽕 공동체, 이렇게(웃음). 만들면야 많겠지.

청춘: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사과: 각 개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지.

박하: 사실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 된 다른 나라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도 많지 않은 것 같아. 하긴 성소수자 관련 분야가 항상 자료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참고해서 보고 배우고 상상할만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롤 모델이랄 것도 없고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료를 찾기도 힘들니까, 막막해. 롤 모델이나 자료 같은 게 중요할텐데. 그래야 모색할만한 꺼리가 있잖아.

람다: 직접 만들어봐, 개척자로.

World NEWS

미 성공회 LA교구, 동성애자 2명 주교 서품 2009. 8

미국 성공회 로스앤젤레스(LA) 교구가 2일 동성애자 남녀 신부 1명씩을 주교로 서품했다고 LA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 성공회가 동성애자의 사목을 사실상 허용하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진보적인 교구로 꼽혀왔던 LA 교구가 선도적으로 동성애자 주교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성공회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애너하임에서 개최한 연차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성애자의 사제와 주교 서품을 허용하고, 성당에서 동성커플의 결합을 축복하는 의식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계 미군중위, 커밍아웃으로 강제전역 2009. 7

한국계 2세로 미국 뉴욕 국가방위군 소속인 대니얼 최 중위(28)는 지난주 강제전역을 명령 받았다. 2003년 웨스트포인트(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1년 반 동안 이라크 전에 참전했으며, 아랍어에 능통한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장교인 그가 '해고'된 이유는 "동성애자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항의해 최 중위는 동료들과 함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독일, 동성애자 권리 강화 개헌 추진 2009. 6

독일의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과 정치인들이 동성애 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이번 주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의 헌법 3조를 보완하기로 의결했는데 무엇보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애자 공무원으로 특채 : 파라과이 화제 2009. 6

정부가 앞장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근절을 위해 공직사회의 문을 개방한 국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가 바로 그곳.

파라과이 대통령실 직속 기관인 국가 재해대책 본부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모두 2명을 특채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전했다.

카밀로 소아레스 파라과이 재해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특채한 건 대다수 일반인과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을 뿌리 뽑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성애자 중에는 (사회적) 수치심 때문에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특채 결정으로 파라과이 정부는 (일반인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아이슬란드, 레즈비언 총리 취임 2009. 2



요한나 시구르다르도티르(66)가 아이슬란드의 첫 여성 총리에 취임했다. 이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세계 최초의 국가 수장이다. 시구르다르도티르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73%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는 2002년 기자 겸 극작가인 요니나 레오스도티르와 시민동반자로 결합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세월드경제]

많았고 많았었던 일들이 지나갔고
여전히 우리를 불안정 속에 몰아넣지만
그럼에도 변함 문화제는 열리네요.
역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화자찬
소수자 마인드는 keep going on~

by 김네

얼마 전 친구가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딱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이성애자라고
잡라 말하던 그 친구는 요즘 무척 행복해 보인다.
옛날 얘기를 하면 그저 웃는다. 고작 1년인데 참
많은 것이 변했다. 나도 변하고, 내 친구도 변했다.
(사랑하는 R 고마워, 그리고 100일 축하한다 L)

세상은 계속 변하고, 변화해야 발전한다고는 하지만
언제고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올해, 우리의 문화제는 어김없이 또
시작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갈았기를 바라며,
또 그여했음을 믿으며 수고한 변남소녀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보낸다 :)

by 파이

벌써 세 번째, 한해 한해 정말 새롭다.
사실 이제 난 많은 것들이 한번에 바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사랑 안에서
느끼고 원하는 것이 모든 이가 더욱 자신있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일조할 수 있게 함께 감사할 뿐이다.

항상 내게 균형과 영감과 사랑을 주는
S에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by 박하

예산과 관련해 말과 말이 많은 사이에서
열리게 된 문화제네요. 다음 해 문화제는
어떤 환경에서 준비하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무조건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역시 치열함이 소수자 운동의
출발점이니깐요. 치열한 고민과 역동력이
이와 안에 있길 바라며 7회 문화제가 잘
마무리되길.

by 람다

나나, 지은, 파이, 김네, 람다. 그리고 함께하진
못해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활동가들 모두
고마와요. 편집하느라 고생한 변남 에디터 박하씨
정말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없는 형편에 고생했던 만큼 2010년엔 더욱
맛진 레즈비언 문화제를 올릴 수 있을거예요 :)
이와의 LGBTQIAQ 여러분 함께 힘내요!

p.s. 레즈비언 산부인과 전문의, 출산 관련하여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연락 기다릴게요.
(flyingguri@hanmail.net)

by 수라

늘은 몸으로 들어와서 처음 참여한 문화제
입니다 :D 처음인 만큼, 그닥 도움이
되면서 한 입적은 없는 거 같군요 T-T
더운 데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이
부디 가난한 문화제가 잘 끝났으면
종교근영.

+ 너굴이에게 애정을 전하며,
by 나나

목마른 기본으로 시작한 자료집을
귀여운 잡지들로 만날 생각을 하니
편이 기분 좋아지네요.
목마르고 돈마르면 우물을 파야죠..
앞으로도 화이팅

by 지은

발행일 : 2009년 9월 21일
본문 편집 디자인 : 박하
표지 디자인 : 박하
퍼낸곳 :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ttp://lgbtact.org>

<무지개행동>은 고정된 성별이분법, 이성애주의, 가부장제가 만들어 내는 인간성
침해, 기본권 침해에 저항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제도의 차별과 일상의 폭력에 반기를 듭니다.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강화하고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모든 인권 문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 연대해 맞설 것입니다.

<무지개행동>은 또한, 우리란 이름 안에 다양성이 무한할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 안의 마주침과 부딪침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을 압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보다 폭넓게
나누리라 다짐합니다. 그러한 배움과 나눔의 과정이 우리 운동으로 하여금 고인 물 같지 않고
흐르는 강 같이 세상을 적시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이 <무지개행동>을 통해 따로 또
같이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성역할에 대한 강요가 없습니다. 규격화된 사랑의 방정식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비정상'이라는 낙인은 어디에도 찍히지
못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완전히 철폐된 세상은 먼 미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힘 있게 나아가길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현장에 있을 것이며, 개인의 고민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대사회적 발언에 힘을 모으는데
주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움이 사회의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성소수자
인권의 무지개를 하늘 가득 띄워 올리길 소망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동성애자인권연대
www.outpridekorea.com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www.pinks.or.kr

청소년 성소수자커뮤니티
Rateen
<http://cafe.daum.net/Rateen>

언니네트워킹
www.unninet.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www.lsangdam.org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

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
www.gendering.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c.org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성정시기획단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인과 함께 만드는 레즈비언 문화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9월이 되면 학문관 로비에서 펼쳐지는 변날의 정기 문화제.

올해도 어김없이 변태 소녀들은 문화제 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지급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번 방학은 어느 때 보다 힘들게 문화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치단위와 일말의 논의 없이 이루어진 총학의 막무가내 예산 지급에 의해 변날을 포함한 기존의 자치단위는 예산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모든 대외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변날의 정기 문화제는 교내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이자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으로 이화인들과 지난 6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그간 지급된 대개의 예산이 문화제 준비를 위해 사용되었을 만큼 문화제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각출한다해도 현재의 상황으로선 문화제를 개최하기에 턱없는 금액입니다. 변날의 정기 문화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화인들의 인식을 제고할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낮은 성찰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번 문화제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위는 예산을 받는 한에서 외부 재정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재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제 준비를 위한 이화인들의 땀짓돈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오늘 하루 멸치김밥대신 치즈김밥을 먹는 센스!

남는 오백 원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세요:-D

망구스의 식량에 쓰입니다♥

신한 110-279-496546 김은지